

# 전국 최대 광양시 청소년 놀이문화공간 '노라야재' 개관

## K-POP 스튜디오·XR 스포츠 체험공간 등 청소년 맞춤형 놀이시설 마련

광양시는 청소년을 위한 놀이문화공간 「노라야재」 조성을 완료하고 지난 3월 2일 개관식을 개최했다.

청소년 놀이문화공간 「노라야재」는 광양시청소년문화센터 내 기존 수영장 공간(1,053.29㎡)을 리모델링해 K-POP 스튜디오, XR 스포츠 체험공간, 파티룸 등 청소년 전용 놀이문화공간으로 조성됐다.

이날 개관식에는 지역 주요 인사와 청소년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라야재」의 새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행사는 청소년댄스동아리 「카르페디엠」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기념사와 축사, 테이프 커팅, 기념촬영,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시설을 둘러보며 공간 조성 취지와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행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우리만의 공간이 생겨 기대된다”, “친구들과 함께 자주 이용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학부모들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어 안심된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노라야재」가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건전한 여가 공간이 될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 놀이문화공간 「노라야재」는 광양YMCA가 위탁 운영할 예정이며,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광양/신선호 기자



### 보성군, 찾아가는 경로식당 '사랑의 밥차' 출발

#### 11년째 이어지자... 어르신 건강과 행복 위한 맞춤형 서비스

보성군은 지난 4일 별교읍 상장경로당에서 상장마을과 지음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2026년 찾아가는 경로식당 '사랑의 밥차'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랑의 밥차'는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맞춤형 영양식을 지원함으로써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6년 처음 시행된 이후 보성군노인복지관이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대표적인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급식 지원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 교육, 마음 상담 서비스, 이동 빨래방, 실버 음악 교실 등 보건소와 복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

강 증진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그동안 이용 인원이 30명 이상인 경로당을 우선 대상으로 운영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이용 인원이 적은 경로당도 인근 경로당과 통합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노인복지관 차량을 활용한 이동 지원을 강화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은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여름철 폭염 기간을 제외하고 운영되며, 올해는 보성군 내 30개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와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보성/김운기 기자

전남 합평군 보건소가 군민 흡연을 감소와 금연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합평군 보건소는 “지난달 25일부터 관내 사업장과 기관·단체, 마을 경로당 등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과 동반 참여형 금연 프로그램인 '함께하는 금연 약속'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동 금연클리닉은 시·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등 군민을 대상으로 전문 금연상담사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맞춤형 금연상담과 금연보

### “올해는 꼭 끊으세요” 합평군 보건소, 흡연을 낮추기 '총력'

#### 찾아가는 금연 상담·동반 금연 지원... 프로그램 '다채'

조제를 지원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1:1 개인별 금연상담 ▲니코틴 의존도 평가 ▲체내 일산화탄소 측정 ▲니코틴 패치·껌 등 금연보조제 제공 ▲금연 행동요법 지도 등이다. 참여자는 등록 후 최장 6개월간 체계적인 금연 상담과 관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금연 참여자의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해 '함께하는 금연 약속' 프로

그램을 병행한다.

'함께하는 금연 약속'은 가족·친구·직장 동료 등 금연 동반자가 함께 참여해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동반 금연 프로그램이다. 공동 목표 설정과 금연 실천 서약을 통해 금연 성공률을 높이고 장기적인 금연 유지를 돕는다.

동반 참여자는 ▲정기적인 상담 ▲금연 실천 점검 ▲응원 메시지 제공 ▲성공 기

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금연을 유지할 시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동 금연클리닉은 5인 이상 신청할 시 방문 운영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합평군 보건소 건강증진팀(☎061-320-2433)으로 신청하면 된다.

합평군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은 혼자보다 함께할 때 성공 가능성이 더욱 높다”며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과 함께하는 금연 약속 사업을 통해 군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금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합평/전광훈 기자

장흥군이 국제 우호도시인 중국 저장성 장흥현을 방문해 글로벌 차(茶) 박람회 참석하며 양 도시 간 교류 협력 강화에 나섰다.

장흥군 대표단(부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등 5명)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중국 장흥현을 방문해 '2026 비유 제다대회 「경첩 합산·다성 공경」 글로벌 연동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장흥현의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양 도시 간 우호 협력 관

### 장흥군, 중국 장흥현 글로벌 차(茶) 박람회 참석... 협력 강화

#### 물축제·통합의학박람회 교류 이어 차 산업 협력 확대

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차(茶) 산업을 비롯한 농업·문화 분야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표단은 장흥현 장화(姜华) 현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과 우호 교류 회의를 갖고 기념품을 교환하며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양 도시는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선산호와 차원과기유한공사, 봉접식품유한공사, 텡닝산업원 등 지역 산업시설을 방문해 차 산업과 농식품 가공 산업의 발전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산업 분야

협력 가능성도 모색했다.

특히 대표단은 이번 방문의 핵심 행사인 글로벌 차 박람회 제다대회와 연계 행사에 참석해 장흥현의 차 문화와 산업 발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양 도시 간 차 산업 및 농업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장흥군과 장흥현은 2015년 우호협약 체결 이후 다양한 문화·경제 교류를 이어오며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다. 장흥군 제공

영암군이 3/2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주관의 '2026 지역사랑 휴가 지원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여행경비 50%를 모바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내용으로,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까지 견인하는 제도다.

시범사업 선정으로 영암군을 여행한 관광객에게는 월출페이로 경비 50%를 환급해 준다.

### 영암군, 문광부 지역사랑 휴가 지원 시범사업 선정

#### 여행경비 50%, 최대 20만원 지역화폐로 환급

단, 장거리 여행객 지원을 위해 영암군과 인접한 목포·나주시민, 강진·해남·무안·화순군민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여행객은 사전 지원을 신청한 다음, 지정된 기간 동안 영암군의 숙박·식음·체험 등 관광 관련 업체에서 쓴 1인당 경비 10만원 이상을 제시하면, 최대 1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2인 이상이 영암 여행한 경우라면, 최대 4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월출페이로 받은 환급금은 올해말까지 월출페이 가맹점이나 온라인 영암몰에서 사용해야 한다.

영암군은 한국관광공사와 협약 체결

하고, 보조금 교부 절차를 거쳐 '2026 영암인문축제가 열리는 4월부터 시범 사업에 들어간다.

여행경비 환급 등 자세한 내용은 시범사업 시작 전에 따로 알릴 예정이다.

특히, 영암군은 지난해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지역화폐 환급 방식의 관광 인센티브 제도 '영암 여행 원플러스원' 경험을 이번 시범사업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영암/김희선 기자

## 시민의 아이디어가 2027년 순천을 만듭니다

### 순천시, 2027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 접수

순천시는 2027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시민의 시각에서 생활 속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참여 행정의 대표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순천시는 2021년부터 2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전면 시행해 왔으며,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생활밀착형 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왔다. 그 결과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 지역특화사업, 지역돌봄 및 역량강화 사업 등 시

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들이 다수 반영됐다.

이번 공모는 순천시에 주소를 두거나 생활권을 두고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생활 불편해소 ▲지역 공동체 활성화 ▲돌봄·안전·환경 개선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접수된 사업은 관련 부서의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2027년도 본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은 행정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지역의 필요를 시민이 직접 제안하는 소중한 통로”라며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사업을 제안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정성인 기자

